

한국의 건축가 9 - 김종업(1)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김종업건축의 바탕 - 김종업의 일생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by Zho In-Choul

이번호부터 소개되는 건축가 김종업편에서는 출생후 평양과 일본동경에서의 생활(1922-1945)을 시작으로 해방 후 남한에서의 생활(1946-1951), 유네스코주최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의 한사람으로 참석하면서부터 르꼬르뷔제의 문하에서의 생활, 귀국후의 활발한 건축활동 시기(1952-1971) 그리고 또다시 9년간의 외국생활이후 남은 건축인생기(1972-1988)등으로 구분하여 먼저 김종업의 일생(1회: 부인 김병례여사와의 대담내용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다음 2회와 3회에서는 필자가 김종업 선생 생전에 대담한 내용을 정리·소개하고 그의 건축가로서의 역정(歷程)과 작품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 김종업 건축의 바탕
- 김종업의 일생
2. 대담내용
- 김종업 건축과 샤머니즘
3. 대담내용
- 김종업과 르꼬르뷔제
4.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종업 건축의 해석
- 김종업 건축의 어휘



김종업

김종업의 가계(家系)

김종업은 연안김씨의 후손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선비였으며, 할아버지의 슬하에는 세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김종업의 큰아버지인 김영?(金永?), 아버지 김영필(金永弼), 그리고 아래의 작은 아버지 김영달(金永達)이라고한다.¹⁾ 큰아버지는 선비였고, 작은아버지는 학교의 선생이었으며, 아버지인 김영필은 평양의 명문학교인 평양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던 시절에 군수를 지냈지만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버틸정도로 고집쟁이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김종업의 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첫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두번째 부인을 맞게 되는데, 이 분이 김종업의 친어머니이신 '이영자'²⁾이다. 김종업은 북한의 평양시 진항리에서 태어났으며(1922년 3월 9일생), 주로 아버지쪽을 많이 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종업은 부친의 근무지에 따라 강동, 중화, 성천으로 다니면서 어린시절을 보내게 된다.³⁾ 김종업의 형제들을 살펴보면, 김종업의 형님인 김광업(金廣業)은 김종업과는 이복 형제이고, 동생들은 아래로 김인업(金仁業), 김훈업(金勳業), 여동생인 김정업(金貞業), 김보업(金寶業) 그리고 막내 남동생인 김도업(金道業)으로 김종업은 5남 2녀중 둘째였다. 형님인 김광업은 안과전문의로 서예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말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형제는 김종업이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생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서로의 예술적 재능에 대하여 인정을 했으며 한때 둘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같이 개최하자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타계한 형님 김광업과 바로 아래 동생 김인업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현재 평범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한다. 동생들 중

김중업은 현재 김중업 타계후 김중업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병의(安秉義)의 부인이기도 하다.

김중업의 친인척중에는 특히 의사(醫師)가 많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중업은 상류사회에 속한 가계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 환경속에서 어린시절⁴⁾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家長)으로서의 김중업

김중업은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요코하마관립고등보통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그의 나이 21세였다. 그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일본인 '다카기 사부로' (당시 '미쓰이' 라는 회사의 중역)의 아들과 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했었는데 그집의 딸이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집안어른에게 알려짐으로써 일본 여인과의 결혼을 염려한 아버지의 뜻에 의해 서둘러 결혼하게 된다.⁵⁾ 김중업의 아내인 김병례는 김중업과 거의 같은 동네인 평양시 염전리의 규수(당시 19세)로 평양의 명륜보통학교를 거쳐 평양의 서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양가친척간의 중매로 김중업과 백년가약을 맺게된다. 김중업과 김병례의 슬하에는 장남인 김희조(金熙祖)와 김희검(金熙儉), 김희몽(金熙蒙), 김희성(金熙盛), 그리고 막내딸 김희정(金熙?)으로 4남1녀를 두고 있다. 현재 김희조는 고모부인 안병의와 함께 부친의 건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김희검은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건축일을 하고 있다.

김중업의 가족에 대한 사랑 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제자들에게 엄격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중업은 이복의 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월남한 자신의 어린동생⁶⁾들(인업,훈업,정업,보업,도업)을 교육시키고 결혼시켰다. 물론 이러한 장남으로서의 역할은 부인의 헌신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부인 김병례여사와의 대담(1997. 1. 25 과천지택)

김중업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자의든 타의든 잦은 외국떠돌이 생활로 인하여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김중업은 부인 김병례의 숨겨진 능력을 찾아내어 한명의 미술가로서 성장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김중업은 프랑스나 미국에 있을 때 종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부인과 함께 찾다니면서 부인의 미술가로서의 소양을 키워 주었다고 한다. 한편 가장으로서, 김중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집마다 아뜨리에를 차리고 있을 때나 프랑스의 위유생활중이나 그의 부인으로서 만이 아니라 도면 컬러링을 맡은 한명의 설계요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내는 아내에게, 고독한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갈길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한여인에 대하여 무한한 연민의 정을 느꼈을 법하다. 김중업은 일과후 집에서는 별로 말이 없는 편이었으며,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혼자서 감당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부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비평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며, 부인이 옳은 평가를 할 때는 그저 한두마디만 언급할 뿐이었다고 한다. 김중업은 생전에도 부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자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부인이 평양서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현명한 여성이었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월남하여 남한에서의 생활이나, 프랑스의 고독한 위유기간중에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준 부인에 대한 인정(認定)이고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다.

한 인간(人間)으로서의 김중업

김중업은 일제시대였긴 하였지만 상류 엘리트의 가정에서 별로 아쉬움이 없는 좋은 환경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중업의 아버지는 군수도 지냈고, 민선시의회의원도 지냈던 정도로 사회지도층 인사였다. 실제로 신임으로 오는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등은 부임인사를 위해 김중업의 집을 다녀 갈 정도로 세력가였다고 한다. 한편 김중업의 형인 김광업은 '수양동우회(흥사단 전신)' 사건과 관련하여

1) 김병례(고 김중업의 미망인)와의 대담; 본문내용중 각주가 없는 것은 녹음된 대담(1997.1.25. 과천지택에서 PM4:30-7:30:최후 하단 사진)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2) 김중업, "한국적인 멋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김중업: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열화당, 1984, p.248-253; 그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3) 위의 책, p.282.
 4) 김중업, 앞의 책, p.248.; 김중업선생은 어린시절(평양성전) 그가 살았던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산수가 수려한 그곳 성천의 기억은 어머니의 기억과 함께 마치 잘 짜여진 서사시(敘事詩)와도 같다.
 읍(邑) 한쪽에 자리잡고 있는 관사의 넓은 뜰에는 늙은 느티나무며 향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고 화단에는 이름모를 꽃들이 잘 가꾸어져 봄이면 앞을 다투어 일제히 피어 마치 관사는 로렐리의 화원 속에 묻힌 집 같고 여름이면 그 늙은 느티나무며 향나무의 짙은 녹음속에서 매미가 한가로이 울어댔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면 얼핏 보기에 이불두께만한 몽롱한 여름안개가 양털을 펼쳐놓은 듯 넓은 관사 뜰위의 군데군데에 떠 있던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다. 혹은 여름안개가 자욱이 사방으로 퍼질 때면 온 뜰과 내려다보이는 읍내의 일각이 하얀 바다처럼 보이고 군데군데 우뚝 솟은 나무들은 흙사 바다의 암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새들은 재재거리면서 안개를 헤치고 하늘 드높이 밝은 곳까지 올라가 날개를 펼친 채 햇볕을 쬐다가는 유리알같이 반짝이는 나무가지처럼 젖은 편자 율타리 위에 내려앉기도 하였다.
 5) 김정동, 『뿌리』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상과 전망, 서울, (주)토탈디자인, 1981. 6. 통권30호, p.62.
 6) 김병례와의 대담; 결혼당시 김중업의 막내동생 도업씨의 나이가 4살이었다고 함.

반일인사라는 명목으로 여러번 옥살이를 한적이 있다고 한다.⁷⁾ 어린시절 김중업의 공부는 4살 때 그의 할아버지(서당을 운영 하셨다고 함)에게서 천자문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경림국 민학교를 7살에 입학해서 한학년을 월반하여 졸업하고 평양고 등보통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부인 김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고등보통학교는 당시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에 비견될 정도의 명문고등학교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수재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김중업은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집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과외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정교사는 평양고등보통학교 선배인 '이재하'라는 사람으로 1.4후퇴후 부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김중업은 평양고등보통학교시절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만 미술과 시에도 심취하였고, 당시의 미술교사인 '니노미야'⁸⁾라는 일본인은 그의 미술적재능을 인정해 교내 미술부장을 시킨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지만 집안에서는 김중업이 시나 미술에 심취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김중업은 집안의 뜻을 거슬러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니노미야' 선생과 상의한 후 건축을하기로 결심하고 시의 건축, 아름다움의 건축을 일생동안 추구하게 된다.

사실 김중업의 건축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김중업은 일본으로 가서 건축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평양고등보통학교 4학년때(당시5년제) 동경 우라와 고등학교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일본의 고공에 뜻을 두게된다. 김중업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되는 데 마침, 요코하마고공의 건축과에 '나카무라준페이(中村順平)'라는 프랑스 '에콜 드 보자르(파리 미술대학 그로물교수문하생)' 출신의 주임교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그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정한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 요코하마고공은 동대(동경제대)하고 맞먹는 학교였다⁹⁾고 한다. 한학급에 학생수가 25명 정도였는데 한국인으로는 혼자였던 김중업은 입학후 교과과정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여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다. 이러한 학업성적으로 인해 후에 서울대학 교수로 부임할 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

한편 김중업은 소위 '요코하마 우찌꼬시바시 교회사건'에 연류되어 독립운동혐의로 체포되어 청각이 상할 정도로 물고문을 당하게 된다. 김중업은 여운형(呂運亨)의 여동생을 통해 당시 중경(重慶) 임시정부에서 오는 소식이나 지령을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갖다가 발각되어 체포된지 20여일 만에 요코하마고공의 교장 친구인 '다카기사부로'라는 '미쓰이' 군수산업회사의 중역의 보증으로 풀려난다. 그를 보증해준 일본인 '다카기사부로'는 김중업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의 집에서 묵게하고 아들, 딸의 가정교사를 시키는데 그를 딸과 결혼시킬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

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중업이 요코하마고공을 졸업하자마자 집안에서 서둘러 결혼을 시키게 된다. 부인 김병례의 증언에 의하면 결혼후 일본에 갔을 때 김중업의 방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후에 그것이 르꼬르뷔제의 사진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김중업은 요코하마고공이라는 명문대학¹⁰⁾을 졸업하였지만 그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기회가 있다면 당시의 건축가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르꼬르뷔제의 문하에서 건축을 배워보았으면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시 르꼬르뷔제의 사무실 출신인 '사카구라 준조'의 사무소에 가기를 원했으나 요코하마고공 출신 선배(10년 선배인 사카모토 도시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공출신의 선배들이 있는 '마쯔다히라다'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3년간의 설계사무실 생활 동안, 일본은 전쟁의 막바지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중이었고 김중업 주위의 젊은 남성들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어수선한 사회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런 와중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미군의 폭격기가 한일연락선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놀란 김중업의 평양집에서는 '부친위독'이라는 전보를 띄워 김중업으로 하여금 서둘러 일본생활을 청산하도록 한다.

일본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후 평남도청에서 기수생활(技手生活)을 하다가 3개월만에 그만두고 '조선주택영단'을 거쳐 '조선비행기'에 근무한다.¹¹⁾ 평남도청에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상급과장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그만두게 되고 자리를 서울의 '조선주택영단'으로 옮겨 기수생활을 하는데, 같이 근무하던 김순하(金舜可)¹²⁾가 가져온 '조선비행기공장' 설계와 관련된 아르바이트일을 계기로 경기도 부평소재의 '조선비행기'¹³⁾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기술수첩의 이전 수속을 하던중 그가 일본에서 요코하마 우찌꼬시바시 교회사건과 관련된 것이 일본헌병대에 알려지게 된다. 김중업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기 직전에 친구 유홍상(劉泓相, 1944년 경성공업전문학교 1회졸업)이 알려주어 중화로 도주하여 집안끼리 서로 가까운 사이였던 장면박사 누님 딸 집에서 해방때까지 숨어지내게 된다.

해방되고 3일후에 평양으로 돌아온 그는 '요코하마 독립운동'의 전력을 인정받아 소위 '공청(共靑)'이라고 하는 '공산청년동맹'의 핵심역할인 연구부장직을 맡아 하게 된다.¹⁴⁾ 이러한 전력은 후에 김병례여사의 증언처럼 김중업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로, 빨갱이로 모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으로 이용되고 결국 1970년대에 강제 출국당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한과 북한이 이념상 갈라지게 되면서 그가 있던 북한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는 모스크바로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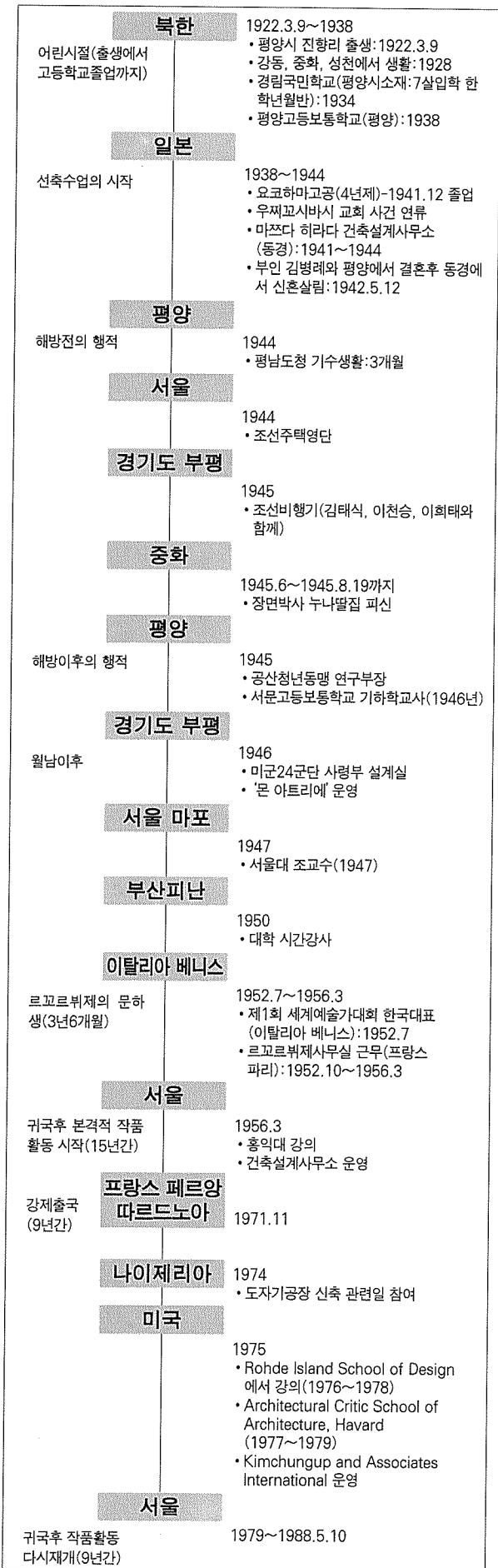


표2. 김중업 일생동안의 행적

명령을 받게 되지만, 공산주의의 한심한 교락서니¹⁵⁾와 폐결핵의 악화로 공산당조직에서 탈퇴하고 만다. 김병례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공산당은 김중업을 다시 설득 시키기 위하여 상당기간 그를 쫓아다니게 되는데, 김중업은 그들을 피해서 건축일을 그만두고 행상을 하거나, 전공과 거리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¹⁶⁾를 하다가 결국은 남한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된다. 그러던중 우연한 기회에 단신으로 월남하게 된다. 이에대해 부인 김병례씨는 “먼 집안에 문석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경에 술대학조각과’를 나왔는데 조각가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었는데 관에서 지급한 건데 나도 후에 갈테니 먼저 가라고해서 3·8선까지 자동차로 시찰명목으로 와서 대낮에 3.8선을 넘어 버렸지요”라고 회상한다.¹⁷⁾ 월남과정에서 우연하게 만난 미군의 도움으로 경기도 부평에 소재하고 있던 미군24군단 사령부에서 설계일을 하게되는데 그곳에서 과거 해방전 서울의 ‘조선주택영단’에 같이 있었던 ‘박학재’를 만나게되고, 그는 박학재의 도움으로 설계일을 소개 받으면서 개인사무실을 열게 되는데 그것이 ‘몬 아트리에’이다. 개업초기는 미군관련시설인 식당, 교회 등을 설계하면서 사무실 운영 상태가 좋았다. 따라서 평양에 있던 부인과 아들 희조가 월남하여 북한에서의 생활근거지를 남한(서울마포)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미군군속과의 불화¹⁸⁾로 일이 끊어지고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던차에 당시 서울대학 공대 학장이었던 김동일교수(평양고등보통학교 선배)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어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을 것을 권유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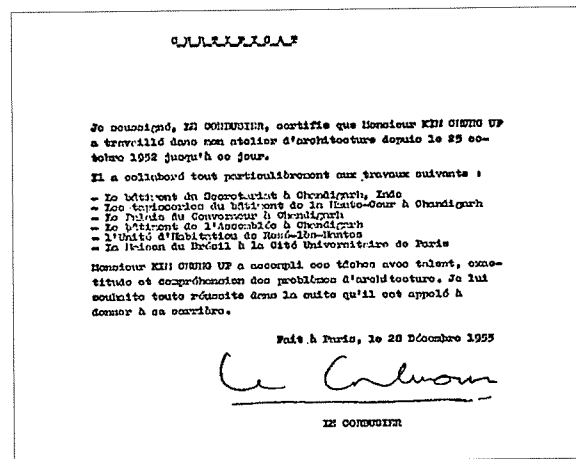
7) 김정동, 앞의 책, p.58.; 형님은 김광업(金廣業)인데... 일제시대엔 줄곧 육살이를 했죠. 일본은 내아범님이 미웠으나 집안이 크고 세력이 있으니까 대신 자식을 불러다 혼을 내곤 했지요. 수양동우회(홍사단 전신) 사건이나 하여 늘 형이 감옥엘 들락거렸지요
8) 김정동, 앞의 책, p. 58.; 동경미술학교 출신이었다고함.
9) 위의책, p.59.
10) 윤일주, “洋式建築流入時期에 있어서의 韓國人建築家의 活動과 그 作品에 關한 調査研究”, 『韓國近代建築史研究』, 서울: 故尹-桂教授 추모논문집 편찬위원회, 1987.11, p.79.
: 1919년 이후 1945년의 解放직전까지 工業專門—高工에서 배출된 韓國人 建築기술자(여기에 시공과 설계의 구별은 없다.)의 수는 60명 정도이며 그간 일본의 專門大學에 유학한 기술자들이 적지않게 있었다. 그러나 그 태반이 1930년 이후에 사회에 진출한 것으로 믿어지며 전체 기술자중 창작(설계)에 종사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1) 이일훈, “뉴튼적 사고를 거부하는 건축가, 김중업”, 『공간, 서울, (주)공간, 1986.3, 통권, 224호, p.46.
12) 윤일주, 앞의 책, p.79; 김중업은 전라남도토목과를 거쳐 1934년이후엔 총독부, 1943년 이후엔 주택영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음.
13) 김정동, 앞의 책, p.61; 박홍식씨에게 끌려서 ‘조선비행기’에 들어가지요. 시흥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천승, 김태식, 이희태씨를 만나게 되지요.
14) 김정동, 앞의책, p.61.
: 해방후 소위 공경(共靑)이라고 공산청년동맹 대장 노릇을 했죠. 왜냐하면 오키야마 독립운동 시기의 연줄이 돼서요. 그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왜놈들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내손으로 ‘건축동맹’을 만들어요. 거기서 연구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요. 위원장은 로보트지요. 조선 공산당 차량지원을 받아 소위 이북5도에 있는 건축자재를 다모으고 왜놈들이 쓰던 5층빌딩인 평양의 ‘금천대 회관’을 접수하지요. ‘건축동맹회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5도의 건축 동맹원들을 재훈련시키는 활동을 하지요. 그때 김일성이 나타나서 실망을 하고 난 시표를 제출해 버려요. 물러왔을 거지요. 그래 가지고 평병47의 진단서를 내고 말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병기운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공직에서 떠나지요. 그때 모스크바에 가려는 명령이 내렸지만 금전 공산주의에 현열을 느꼈던 때라...
15) 김병례, 앞의 대담; 표현을 그대로 옮김
16) 김정동, 앞의책, p.61.;
: 부인 김병례가 졸업한 평양서문고등보통학교의 기하학 담당교사
17) 김정동, 앞의책, p.62.
: 그의 덕분에 대낮에 넘어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히려 수상하다고 ‘서북청년회’에 잡혀가 열어맞지요. 그때 미군이 질차를 타고오다 밧서 말리곤 나를 태우고 서울까지 데려왔죠. 지금 ‘롯데호텔’ 맞은 편 ‘USIS’ 자리인데 당시 24군단 사령부였어요. 거기서 스미스라는 소령을 만나요. 24군단사령부 정보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신문을 받게 되지요. 그땐 영어를 조금 했으나 공산주의가 심어서 내려왔다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지요. 그후 24군단 사령부 설계실에 설계요원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박학재씨가 있었지요. 나는 설계실에 있는 것이 싫으니 설계도금을 달라고 했지요. 그러가지고 ‘에스클 시티’라고 부르던 부평 미군기지장에서 설계업무를 시작해요. 설계업을 시작한 것은 처음일 거예요. 그것이 46년 말인데 그때 ‘몬 아트리에’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식당, 교회 등의 일을 했지요. 당시엔 지금 돈 몇천만원씩 벌 때였지요. 서울에서 허라는 뼈를 모두 훔칠고 다녔지요.

25세의 나이로 서울대공대의 전임강사로 들어가고 1년만에 곧바로 문교부조례의 규정에 따라 요꼬하마공에서 우등한 사실을 인정 받아 조교수로 임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초고속 진급이 동료, 선배교수들의 선망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론 시기의 대상이었다. 김중업은 후에 프랑스 르코르뷔제 사무실에서 돌아와 서울대에 복직하기를 희망했으나 당시 전임교수였던 이균상¹⁸⁾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대 복직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김중업에게 있어서 학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더불어 김중업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의 상사나 건축주 등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경우에 자신의 이익이나 의견을 어느정도 양보하는 타협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결국 이러한 대쪽 같은 성격은 그의 아버지의 피로 부터 이어 받은 것이었겠지만, 자신의 근거가 없는 곳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친구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사회활동에 최대의 장애요인이었다. 전쟁중에는 설계일이란 거의 없었으므로 여러 대학의 강의를 맡으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김중업이 책임져야 할 식구는 그의 어머니, 형의 가족, 동생들 그리고 자신의 처와 자식들이었다.

서울공대 전임 조교수, 한양공대 전임교수, 서울사대 시간강사, 이화여대 시간강사, 숙명여대 시간강사, 부산공업학교 전임강사 등의 강의를 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술가들과 계속 접촉을 가졌고 그런 교우관계가 계기가 되어 1952년 7월 베니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중의 한사람으로 참석하게 된다. 김중업은 잠깐 다녀올 생각으로 출발했으나 회의중 특별연사의 자격을 얻어 연설할 기회를 얻게되고, 그날 저녁

연회석상에서 의장단의 일원이었던 건축의 거장 르코르뷔제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에게서 자신의 연구실로 한 번 와보라는 말을 듣고는 돌아갈 비행기표를 돈으로 환전하여 가족들에게 그들의 생활비로 우송해 버렸다.

김중업은 베니스에서 빠리로 가서는 객사(客舍)²⁰⁾에 머물면서 르코르뷔제 사무실로 찾아가²¹⁾ 오랫동안 숙원하던 르코르뷔제문하에서 3년 6개월²²⁾ 동안의 건축공부를 시작한다. 그의 르코르뷔제사무실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조국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참담한 전쟁의 상황, 자신이 두고온 대가족의 식구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의 마음 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르코르뷔제를 극복, 자기화시키고 귀국해야 되겠다는 일념 뿐이었다. 당시 프랑스 생활에 대한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설계도면창고의 열쇠를 빌리기 위해 봉급²³⁾의 얼마를 참고지기에게 떼어주기까지 하면서 고풍 내리는 지하창고에 들어가 먼지쌓인 르코르뷔제도면을 뒤지면



김중업이 르코르뷔제에게서 받은 경력확인서

| 프로젝트명 | 주요도면내용 | 작성날짜 | 도면번호(FLC) |
|---------------------------------|---|---|----------------------|
| Maison Jaoul | Maison A, B의 평면도 횡단면도 pan de verre | 1952. 11. 21~ 1953. 1. 6 | 9,961~10,017가운데 9점 |
| Secrétariat, Chandigarh | 기준층, 2층평면도, 파사드 장관블럭 평면, 파사드, 단면 옥상정원 평면, 단면, 파사드 배치도, 클럽, 경사로 램프 파사드 | 1952. 11. 6~9 1953. 2. 23~ 1953. 5. 6 1953. 10. 1~ 1953. 11. 24 1953. 11. 9~14 | 2,661~3,509가운데 약 97점 |
| Palais du Gouverneur Chandigarh | Raj Bhavan 단면, 단면도, 전체배치도 | 1954. 5. 2~ 1955. 6. 7 | 3,803~4,504가운데 11점 |
| Assemblée, Chandigarh | 단면도 | 1955. 10. 24 | 3,029~3,032 |
| Haute Cour Chandigarh | Tapiserie | 1954. 3. 12~ 1954. 4. 1 | 5,870~5,974가운데 100여점 |
| Villa Chandigarh | 램프디테일 | 1954. 2. 10 | 6,832 |
| Villa Sarabhai | 종단면도, 횡단면도, 1층 도면 | 1954. 2. 13 | 6,694 6,701 |
| Villa Shodan | 파사드, 실내 인테리어 | 1954. 1. 30 | 6,412 6,420 |

표 1. 김중업이 르코르뷔제사무실에서 그린도면 (정인하, 『파리滯留時 김중업이 르코르뷔제에게서 받은 影響에 관한 研究』, p.56에서 발췌; 도면번호는 Foundation Le Corbusier의 도면 분류번호)

18) 위의 책, p.62.

: 그후 해리슨이라는 친구가 거기 군속으로 왔었는데 그와 충돌을 했지요. 내가 설계한 것을 집행하다 보니 100년은 걸리겠다. 기초가 이렇게 튼튼할 필요는 없다. 5년후에 우리는 칠수한다'고 떠들어대요. 나는 '한국은 동결선 1미터는 되어야 한다. 조적조는 인명피해가 있으니 튼튼히 저야 한다'고 대응을 했지요. 그것이 감사에 걸려요. 미군 자재를 지나치게 낭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만둬버리지요.

19) 윤일주, 앞의 책, p.79.: 동일인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균상(李均相)은 총독부내국건축과를 거쳐 1926년부터 공공교수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음.

20) 김중업, 작품집, p.252.

21) 정인하, 『파리滯留時 김중업이 르코르뷔제에게서 받은 影響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서울: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1997.1, 통권 99호, p.50.

: 김중업은 베니스에서 파리의 르 코르뷔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고, 이태리의 주요도시들을 방문하여 서구고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행선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그의 스캐치북에 나타난 여행기록을 보고 추정해 보면, 베니스에서 출발하여 피렌체로 가서,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로마와 나폴리를 보고, 북상하여 피사와 밀라노를 보고 파리로 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중업에게는 최초의 유럽여행이었던 이 여행은 대략 5-6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양 건축사에 등장하는 걸작들을 중심으로 여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알프스를 넘어 파리로 향하였다.」로 언급하고 있고, 김병래와의 대담에 의하면 김중업은 스푸르(소형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여행했다고 한다.

22) 정인하, 앞의 책, p.56.: 김중업은 1952년 10월 25일부터 3년 2개월간 르코르뷔제의 사무실에서 일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부인과의 대담내용에 의하면 김중업은 1956년 3월에 홍익대에서 강의하는 조건으로 배려해준 비용으로 귀국했다고 함.

서 수 많은 밤을 새웠다고 한다. 그는 르꼬르뷔제 사무실생활에서도 탁월한 재능과 성실성을 발휘하여 르꼬르뷔제에게 인정²⁴⁾(참고자료1)을 받았다고 한다.

김중업은 요꼬하마고공을 시작으로 르꼬르뷔제 문하까지의 기나긴 건축공부의 여정을 끝내고 귀국하여 자신의 건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56년 3월에 그의 개인 건축설계사무실을 열게 된다. 그는 후에 1971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하기 이전까지 15년간 상당히 활발한 건축활동을 하였으며, 이때 그가 남긴 건축작품은 프랑크대사관, 제주대학본관, 유엔모지정문, 한국미술관, 진해해군공관 등의 문화재공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당시 아파트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그는 와우아파트의 붕괴로 오히려 관재를 입고, 도적촌 사건을 다룬 글로 필화를 입었다. 마침내는 성남시(당시 광주)의 정책을 공개비판했다는 누명으로, 1971년 11월에 3개월 여권으로 프랑스로 출국 당했다.²⁵⁾이것으로 인해 김중업은 타의에 의한 외국생활을 하게 되는데,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 그는 여권의 연장도 안되고 귀국 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당시 설계했던 3·1빌딩의 설계비도 못 받은 채 당국의 세무조사에 의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성북동에 겨우 마련한 집과 사무실도 풍지박산이 되어버렸다.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서 월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은 것처럼 그도 아무런 기반도 없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속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그도 한 인간으로서 대다수의 사람들 처럼 자신의 기반이 있는 한곳에서 세월의 시류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15년간 다져온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 버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딸을 비롯한 자식과 아내를 뒤로 하고 또다시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페르 앙 따르드노아'라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그의 병간을 위해 보내어진 아내와 둘이서 생활하게 된다. 김중업은 르꼬르뷔제(당시 유엔본부 건축위원)의 도움으로 유엔 본부에 제청하여 난민 패스포트인 레세 빠세(Laisser Passer)를 발급받아 여권 없이도 프랑스에서는 계속 머물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의 작품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공회회관, 흥명조씨댁, 외환은행본관 등의 설계가 이어진다. 그러나 그가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그의 작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²⁶⁾ 외환은행본점의 현상설계는 그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의 부인과 단둘이서 완성한 작품이다. 부인으로부터 당시의 눈물겨운 회고를 들어보면, 언제 귀국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환은행본점 설계안을 작성하면서, 그들의 꿈과 소망을 제도판 위에도 그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들을 엄습해오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이겨냈다고 한다. 1974년말이 되어 김중업

은 나이지리아에서 도자기공장의 신축을 위한 설계제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의 대통령간의 양해가 이루어져서 김중업은 출국여권을 재발급 받게 된다. 미망인의 증언에 의하면 김중업은 나이지리아 뿐만아니라 아니라 하버드대학 교수직 등의 여러제의가 있었던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재발급 받은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미국 비자기간을 곧바로 연장했다 한다. 무국자의 생활을 청산한 김중업은 나이지리아 관련일을 3개월 정도 관여한후 미국의 '리즈디(Roh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의 교수직 제의가 있어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는 그곳에서 '로버트 타우'라는 사람과 함께 설계사무실(Kimchungup and Associates International)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1979년에 9년간의 유랑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된다.

이제 그는 60이 다된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의 건축계는 그가 떠나기전의 상황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르치긴 했으나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후배제자들과 경쟁하여 일거리를 가져와야 하고, 이미 기득권을 모두 가진 그들의 심의를 받아야 현상설계에 당선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지저분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으며, 설계사무실의 운영도 쉽지 않았다.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각종 커미션으로 무장한 이사회는 사고성이 없는 영감탱이 예술가가 오직 자신의 재능하나만을 근거로 예술가적 소신을 지켜가면서 버티어가기에는 너무나 추잡하고 힘겨운 상대였던 것 같다. 결국 그는 건축가로서는 아까운 나이인 67세에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미망인의 이야기대로 살아생전에 그렇게 험담하던 사람들이 장례식장²⁷⁾에는 왜든 그렇게 많이들 모여 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갔지만 그의 작품은 남아있다. 혹시 건축선배나 원로들중에 그의 살아생전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말끔히 씻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에게 김중업, 김수근과 같은 세계적 건축가가 있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23) 김병래와의 대담: 김중업이 르꼬르뷔제 사무실에 입사할 당시에는 르꼬르뷔제의 문하생들은 봉급을 받지 않는 상태로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중업은 고국에 두고온 부양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혼자만 어느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했다고 함.

24) 정인하, 앞의 책, p.46.; 르꼬르뷔제사무실에서 김중업이 그린 도면은 표1참조

25) 김중업, 작품집, p.286.

26) 김병래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의 김중업 건축설계사무소는 당시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부인의 조카사위인 권희용(건축가)씨에게 운영을 맡기고 출국한 상태였다고 한다.

27) 김병래와의 대담: 장례당시 3일장을 계획했으나 외국에 나가있던 자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득이 5일장을 치렀으나, 건축계의 각분야에서 몰려드는 문상객 때문에 5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발인: 1988년 5월 15일, 오전10시, 강남성모병원

장지: 경기도 포천군 대촌면 서능공원묘지